



프란치스칸 가족 협의회



2023  
2026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거행될 기념제들

# 프란치스칸 가족 협의회

2021년 1월 1일

우리 수도회들의 모든 형제들과  
프란치스칸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1회 형제들, 클라라회 자매들,  
울수 3회(TOR)와 재속 프란치스코회(OFS)-유프라(GiFra)의 형제 자매들이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몇 주 전에 우리는 2021년 10월 2일자 서한으로 프란치스칸 기념제를 위한 준비위원회 설립(la creazione di un Coordinamento)을 알렸습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칸 기념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조직하였는데, 그 기념제 안에서 우리는 인준받은회칙(2023)의, 그렉치오의 성탄(2023)의, 오상받음(2024)의, 피조물의 노래(2025년)의, 그리고 그 절정으로, 프란치스코의 파스카(2026)의 800주년을 회고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기념제들로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거행될 기념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칸 가족들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의 영속적 양성과 초기 양성을 위해, 즉, 우리 관구들, 보호구들, OFS 형제회들 그리고 다른 관련된 단체들의 양성을 위해 기념제의 단계들마다 카리스마(은사)의 심화를 위한 작업 지침들을 제공하기 위한 임무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팀에게 맡기고자 한다고 알렸습니다. 우리의 의도는 우리와 함께 걷는 우리의 형제제들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현실들 안에서 카리스마(은사)의 심화를 위한 몇 가지 공통된 지침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는 우리 형제자매 그룹이 준비하고 우리가 만든 자료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는 다방면의 활용에 도움을 제공하고 이 여정을 친교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돕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다음의 것을) 제공합니다. : 지역 수준에서 다양한 기념제들의 조직을 위한 안내지침들, 우리들의 양성 과정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세라핌 사부의 파스카(건너감)의 800주년의 거행으로 정점에 이르는, 2023-2026년의 이 단일한 기념제를 단계적으로 이어가는 다양한 기념제들의 주제들과 관련해서 작업할 수 있기 위해 유익하고도 적절한 도구.

우리는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면서, 이 도구가 여러분에게 좋은 독서가 되기를, 좋은 작업이 되기를, 좋은 기념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형제적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총봉사자들로부터



## 총론

### 1. 주제들

- 5개의 기념제들이 단일한 하나의 주제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부분을 이루면서 경축하는 사건들의 연대기 순에 따라 점차 그리고 조화롭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 각각의 축제에 내재하고 있는, 특히, 신학적 차원(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 인간학적 차원(형제와 자매들인 우리의 존재), 교회론적 차원(친교 안에 우리의 존재) 그리고 사회학적 차원(세상 안에서 우리의 존재)에 관련된 다양한 전망으로부터 핵심 주제들이 기념제들의 경축을 위해 제시될 것이다.

- 관련 신학적 기초들은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은사)적 전망에서 이해되는 교회 가르침의 문헌들이 될 것이다. 교황께서 당신의 교황직무를 앞세워 수행하고 있는 교회 개혁을 프란치스칸 가족으로써 지원하기에 기념제들의 거행은 알맞은 기회가 된다.

- 기념제들의 거행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확실하게 미래를 향하도록 하고 우리의 프란치스칸 정체성을 카리스마적으로 강화할 목적과 의도가 있다.

### 2. 수취인들

- 제안된 주제들은 모든 대륙의 형제자매들에 의해 생각되고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문화의 통합 내용이 필요하다.

- 기념제들의 거행은 의심할 여지 없이 프란치스칸 가족을 그 전체성 안에서 볼 수 있게 해줄 좋은 기회로써 있을 수 있다. 국가적으로 그리고/또는 지역



적인 수준에서 모든 활동과 선도적인 활동들이 모든 프란치스칸 가족의 대표자 위원회에 의해 조정되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리라 본다.

- Ad intra(내부적으로) 그리고 Ad extra(외부적으로) : 기념제들은 프란치스칸 가족 전체에 한정해서 긍정적인 충격을 가져오는 것으로만 방향 지어지지 않는다. 교회적이 아닌 사회적이고 문화적 영역에서도 그것들의 충격을 가져오도록 상상력과 창의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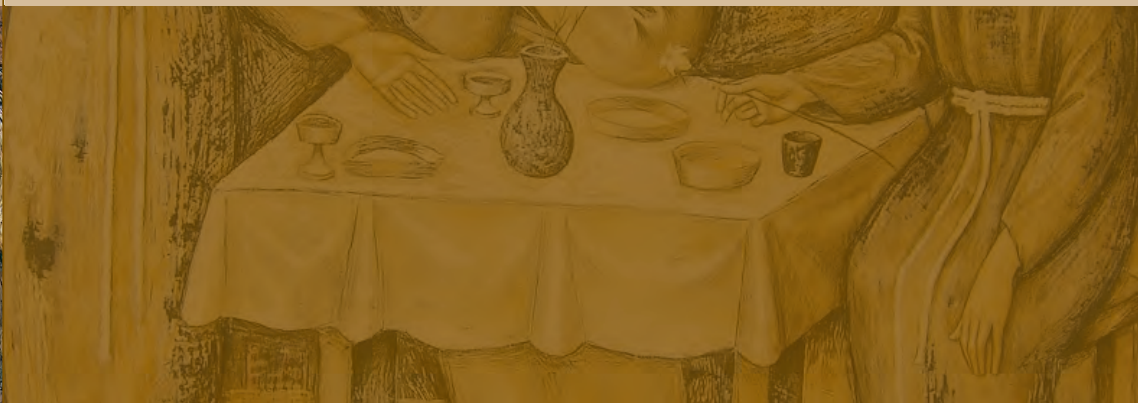
### 3. 방법론.

- 우리는 이미, 많은 교차로처럼, 다년간의 축제(거행) 여정에서 주제별 통일성과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차원들(신학적, 인간학적, 교회론적 그리고 사회학적)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모든 차원은 ad intra(내부적으로) 프로그램들에서 중요하며, 아마도 인간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차원들은 ad extra(외부적으로) 프로그램들 안에서 더욱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 제안들이 이론적이고 지적인 측면에 너무 집중된 채로 있을 위험이 있기에, 각 주제 안에서 제안된 그 주제에 뒤따르는 객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을 활성화하는 몇 가지 행동들을 지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 행동들은 다양한 구체적인 맥락들로부터 구체화하여 출발하도록 그 시점부터 매우 일반적인 방식으로 제시된다.

- 내용에 포함된 주제들은 집회, 모임, dots자리총회, 전시회, 순례들, 선교 체험들 등을 통해 풍부해지고 심화할 수 있다.



### 프란치스칸 가족으로 기념제를 거행하다.

*Tres ordines hic ordinat: primumque fratrum nominat minorum pauperumque fit dominarum medius sed poenitentum tertius sexum capit utrumque.*

«그는 세 개의 수도회를 조직 한다: 첫째를 작은 형제들의 회라고 부르고, 두 번째 것은 가난한 부인들의 회가 되며, 그리고 세 번째, 회개자들의 회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한다.»

아씨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시성식을 위해 1235년에 작곡된, 줄리아노 다 스피라(Giuliano da Spira)의 운율로 된 성무일도의 아침기도 찬미가 옛 후렴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하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성인과 3개 수도회 간의 직접적인 친자(자녀) 관계를 기억한다: 첫 번째 언급된 것이 작은 형제들의 회이고, 두 번째가 가난한 부인들의 회이며 세 번째가 프란치스코가 제시한 회개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남녀들의 회이다. 후렴에서, *ordinat* 동사의 선택은 프란치스칸 가족의 공통 순서(*co-ordination*) 자체를 상기시키는 데, 이것은 법적인 (서열) 순서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의 전형인 친교의 유대 안에 내재된 상호관계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아씨시의 가난뱅이가 천상 수여자로부터 받은 충만한 선물은, 그래서 생생한 상호보완성과 상호 친교 안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이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2신자, 1)을 위한 생활양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향한 예언적 시선으로 우리 카리스마의 풍요로움을 되살리기 위한 고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기념제들을 프란치스칸 가족으로써, 가난뱅이의 복음적 아름다움에 매료된(cf. 찬미받으소서 10)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행하기를 일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주고 받는 선물의 논리에 따라 하기를 원한다. 실제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알몸으로 죽었다고 전기사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그는 하느님께 생명의 영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자신을 포르치운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데려다줄 것을 청하였다. [...] 그는 열정적인 정신으로 맨 땅 위에 알몸인 자신을 눕혔다.»<sup>1)</sup>(대전기 14,3). 그

1) 우리말 번역에서는 대전기 14장 4항이 아닌, 대전기 14장 3항임(인용에 사용된 프란치스칸 원천-FF)



의 전 생애는 자신의 회심의 시작부터 sine proprio(소유없는) 삶, 즉, 되돌려 드림의 여정이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자기 자신 전부를 주는 사람만이 형제회 안에서 최고선이신 분의 뜻대로 인도되어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주 하느님께 모든 좋은 것을 돌려드리고, 모든 좋은 것이 바로 그분의 것임을 깨달으며, 모든 선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옵니다.» (비인준회칙 17,17).

가난뱅이는 자신의 유언에서 그 자신이 확언하듯이, 자신의 삶 안에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에 의해 거저 받은 선물이었음을 인정할 줄 알았다.: «주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기를 시작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유언 1-14). 그는 하느님의 선물들을 받았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선물들을 되돌려드리고자 작정하였다. 그래서 8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받은 사랑의 논리에 따라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봉헌과 돌려드림이 되는 이 다섯 개의 기념제들을 프란치스칸 가족으로 거행할 수 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형제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주었던 이 선물들을 다시 선사하고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시작하자.

---

1240-에 따라 나라별로 차이가 있음). 그리고 그 내용은 “그는 뽀르치운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으로 데려다 줄 것을 청했다. [...] (벌거벗은 적과 벗은 채로) 정신의 모든 열정으로써 다투게 그는 자신을 맨땅에 옷을 벗은 채로 눕히게 했다.” 임. 여기서는 원문대로 번역함.



## I. 회칙을 기념하기(1223-2023).

### 문헌들

인준회칙 1,1; 성녀 클라라 회칙 1,1; 울수3회의 형제자매들의 회칙;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형제자매들의 회칙; 유언 14-15;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 11장.

프란치스코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생활양식이 되고 복음을 준수하도록 구성된 회칙을 서약한다. Regola bollata(인준회칙)을 기념하는 것은 유언에서 확인하듯이, 아씨시 프란치스코에게 회칙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한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몇 마디 말로 그리고 단순하게 기록하게 했고 교황님께서 나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유언 14-15).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기도 안에 들음은 그에게 자신의 첫 형제들과 함께 외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것이다.» 그리고 복된 프란치스코는 말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회칙이 될 것입니다.»(익명의 페루지아 11).

프란치스칸 가족들 중에 어떤 구성원도 바로 그 회칙을 사적으로 서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형제회 안에서 복음을 살도록 부르심 받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생애 중에 형제적 수준에서 다양한 긴장과 위기들을 직면해야만 하는 시기에 Regola bollata(인준 회칙)을 작성하였다는 것, 그러나, 그는 모든 이의 형제로서 살아갈 예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식으로 하도록 우리도 초대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교회는 시노드적(공동합의적)이고 친교적인 차원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형제적 사랑의 성인»(<모든 형제들> 2)이라 부르면서 형제성의 모델로써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모습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그의 몸짓과 그의 말들이 800년이 지나서도 (밖으로) 나가는, 시노드적(공동합의적)인, 모든 이의 말을 경청하는, 가장 작은이들에게 다가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삶을 기쁨과 의미로 다시 채울 힘을 지닌 복음의 전달자인 교회(cf. <복음의 기쁨> 21)가 되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의 여정을 여전히 비추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칸 가족으로써 Regola bollata(인준회칙)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보다 잘 알기 위해서, 우리들 간에 상호 친교와 신뢰를 촉진하기 위해서, 함께 꿈꾸는 것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열린 형제체 이면서 (밖으로) 나섬 안에 있는 형제체, 새로운 문화, 만남과 사회적 우정의 문화의 건설자, «저마다 신앙이나 신념의 부요함을 지닌 개개인, 저마다 목소



리를 지닌 개개인, 모든 형제들»(<모든 형제들> 8)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이  
르기를 바라는 형제회가 되도록 해주는 새로운 복음적 발걸음들을 열기 위한  
기회이다.

**1.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 회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을 실행하는 것»(인준회칙 1,1)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 우리가 서약(고백)한 회칙을 항상 그리고 더욱 더 사랑하고 알기.

**활동들:**

- 우리가 서약한 복음과 회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자리에 위치하는지  
를 점검하기.
- 기도의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우리 회칙의 구절들을 이용하기.
- 우리의 회칙이 개인적이고 형제적인 식별을 비추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회칙으로 우리(자신)를 대면하기.

**2. 형제요 자매인 우리 존재.** «어머니가 자기 육신의 자녀를 기르고 사랑한다  
면 각자는 자기 영신의 형제들을 한층 더 자상하게 사랑하고 길러야 하지 않  
겠습니까?»(인준회칙 6,8)

**목표:** 형제적 삶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회칙의 중요성을 재발  
견하기.

**활동들:**

- 형제회 안에서 회칙을 우리의 일상 활동들에서 구체적으로 살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식들을 함께 찾기 위해 우리의 회칙에 관한 연구와 반성의 일정들을  
계획하기.
- 우리 가정 내부에서, 우리 형제회 내부에서, 직장 등의 영역에서 관계의 질  
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만남의 장(場)들을 장려하기.
- 프란치스코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상호 간의 인식을 장려하고 형제  
적 친교를 증진하는 창의성을 촉진하기.

**3. 친교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톨릭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굳게 서약한 가난과 겸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할  
것입니다.»(인준회칙 12,4)

**목표:** 교회 스타일처럼 형제성과 시노드성(공동합의성)을 촉진하면서, 교회 안  
에서 회칙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에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제공하기.





#### 활동들:

-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약한 우리의 회칙을 살아갈 방식이 지역교회와 보편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우리의 사목적인 일과 우리의 사도적 활동들(사도직들)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것인지 점검하기.
- 성령께서 전 인류 가족을 위해 불러일으킨 선물들과 카리스마들의 다양성을 평가하면서, 우리 지역교회들 안에서 시작된 시노드(공동합의적) 여정에 참여하기.
- 가능한 곳에서, 우리의 회칙의 서약을 공적으로 갱신하기.

**4. 세상 안에서 우리의 존재.** «세상을 두루 다닐 때, 형제들은 남과 다투거나 언쟁을 벌이거나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인준회칙 3,10)

**목표:** 우리의 회칙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형제성(fraternity)과 작음(minority)의 증언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는 기구들 내부에서 일치의 유대관계 건설에 협력하기.

#### 활동들:

- 만남의 문화와 사회적 우정의 문화를 육성하면서, 공동체들과 다른 사회 그룹들과 종교 그룹들 사이에서처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들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을 촉진하기.
- 현대사회와의 만남과 대화의 도구가 되는 방식으로 프란치스칸 가족 안에 현재하는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유산을 복음화하는 힘을 평가하기.



## II. 그레치오의 성탄을 기념하기(1223-2023)

### 문헌들.

1첼라노 84-87; 권고 1, 16-21; 형제회에 보내신 편지 26-29; 주님 수난 성무일도 시편 15.

토마스 다 첼라노는 그레치오에서 성탄절 거행 이야기를 전할 때, 동굴에서 구유를 준비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도록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를 자극한 동기들을 언급한다. 가난뱅이<sup>2)</sup>는 육화의 구체성, 즉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신»(1첼 87) 하느님 아드님의 단순함과 가난 그리고 겸손을 주목하기를 원했기에 그레치오에 머문다. 동일한 역동성을 우리는 성체성사에 대한 관상 안에서 발견한다. 실제로, 프란치스코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영의 눈으로 성체성사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겸손과 하느님 사랑의 구체성을 관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보십시오! 그분은 어좌로부터 동정녀의 태중으로 오신 때와 같이 매일 당신 자신을 낮추십니다. 매일 사제의 손을 통하여 아버지의 품으로부터 제대 위에 내려오십니다.»(권고 1, 16-18).

그레치오의 성탄 기념을 프란치스코 가족으로써 거행하는 것은 인류를 위한 하느님 사랑의 위대함을 관상하기 위해 육화의 신비 앞에 우리를 두도록 하는 초대이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또한 사람의 아들이 되시며, 우리 중의 하나가 되시며, 우리 형제가 되신다(cf. 2신자 56). 육화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 발견되는 인류의 씨앗들을 꽃피우게 하면서 우리 시대의 모든 문화와 사회 안에 있는 뿌려진 말씀들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재촉한다. 더 나아가, 생명을 보호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형제회 안에서 생명의 도구들이요 인류의 도구가 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더 이상 인간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내버려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우리를 재촉한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그레치오에서 육화의 신비를 거행하였던 그 구체성은, «우리가 인간답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선의 보관자들이라는 것.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가운데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sup>3)</sup>(<복음의 기쁨> 264)는 자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2) Poverello는 원래 거지, 가난뱅이인데, 일반적으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를 지칭한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로 번역해도 무방하다.

3) <복음의 기쁨> 264의 한국어 이 부분의 번역은 “(이 보좌는)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 가운데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임. 번역은 원문에 따라 번역하였음



성탄 날, 가난뱅이는 자신의 동료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지극히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로소이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곳이 없었기에 여행 중에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 구유에 눕혀졌나이다.»(주님수난성무일도 15, 6-7).<sup>4)</sup> 그레치오의 구유의 기념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들 안에 차지하는 그 자리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도록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께서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자리가 거기에 있는지도 생각해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40).

그리스도 예수님은 당신의 육화와 함께, 당신을 인간으로부터 분리하는 모든 거리를 제거하셨으며, 우리에게 같은 것을 하도록, 즉 그들을 환대하고 자비롭게 그들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의 이웃들이 되도록 부르신다. 교회의 스승이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처럼 말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처럼 소박한 표징으로 위대한 복음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성탄 구유는 그 기원인 프란치스코 성인 때부터 특별한 방식으로, 성자께서 강생하심으로써 몸소 택하신 가난을 “느끼고” “만져 보도록” 우리를 초대해 왔습니다. 이는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분께서 나아가신 겸손과 가난과 내어줌의 길을 따르라는 호소를 함축합니다. 가장 곤궁한 형제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풀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놀라운 표징> 3)<sup>5)</sup>

**1.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요한복음서 3,16)

**목표:** 보다 더 육화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쇠신하기.

**활동들:**

- 기쁨들과 어려움들을 지닌 일상생활이 주님과 만남의 특전적 장소라는 인식을 회복하기.
- 신앙의 삶 안에서 진보하기 위해 전례와 성사 생활의 삶에 적합한 중요성을 보장하기.
- 아씨시의 프란치스코가 원한 단순성과 가난 그리고 겸손을 반영하는지를 보기 위해 성탄과 다른 전례 축제들을 우리가 거행하는지를 확인해보기.

4) 원문에는 <주님수난성무일도> 15편 5-7로 되어 있지만, 우리말 번역에서는 6-7에 해당한다.

5)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2019년 그레치오 성지에서 교황 교서 <놀라운 표징>(Admirabile Signum)를 발표하셨는데, 이는 “성탄 구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교황 교서”라는 타이틀이 함께 붙은 문헌이다.



**2. 형제들과 자매들인 우리 존재.** «오, 사람이여, 주 하느님께서 육신으로는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의 모습대로, 그리고 영으로는 당신과 비슷하게 그대를 창조하시고 지어내셨으니, 주 하느님께서 그대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권고 5,1)

**목표:**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남성-여성으로 구성된 상호성에 대한 구분과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합적 시각을 회복하기.

**활동들:**

- 우리 형제회들의 양성에 관한 제안들이 인간적이고 영적이며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관점에서 통합적 양성과정들의 실현을 장려하도록 보증하는 것.
- 남성과 여성, 평신도들과 사제들 또는 수도자들 간에 온갖 형태의 대립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구체적인 진취적 활동을 장려하기.

**3. 친교 안에서 우리의 존재.** «귀부인이여, 거룩한 여왕이시여, 인사드리나이다. 하느님을 낳으신 분, 거룩한 마리아시여, 당신은 교회가 되신 동정녀이시나이다.»(복되신 동정마리아께 드리는 인사 1)

**목표:** 우리의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작음 안에서 살아가기.

**활동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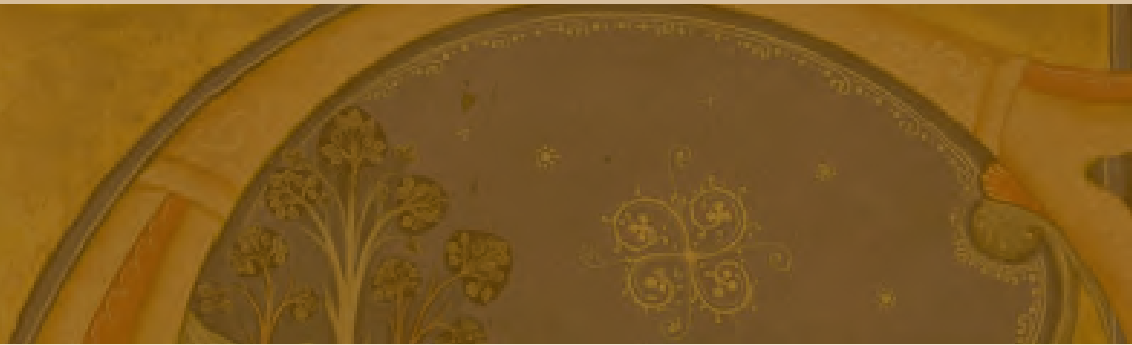
-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우리의 사목적 봉사가 교회의 모성적 차원을 다시 반영하는지, 그리고 육화와 성체성사 안에서 드러난 겸손과 가난으로부터 특징지어지는지 검증하기.
- 진정으로, 크리스천 삶의 원천이요 정점이며 친교와 형제성의 원천으로써 살아있게 되도록 우리의 성찬례 거행의 방식을 다시보기.
-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실질적인 변두리들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교회의 어머니다운 다가감을 가져가기.

**4. 세상 안에서 우리의 존재.**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과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

**목표:** 하느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창조 존엄성을 촉진하면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기.

**활동들:**

-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잉태에서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보호를 위한 투신으로 이끄는 반성과 토론의 장(場)들을 만드는 것.
-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로 향한 활동들을 촉진하기.
-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을 증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기.
- 고아들, 길거리 아이들, 각종 중독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소들을 지원하기.



### Ⅲ. 오상의 선물을 경축하기(1224-2024)

문헌들.

1첼라노 94-95; 대전기 13, 1-10;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레오 형제에게 준 축복; 2첼라노 49.

전기 원천들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사도적 활동 시기를 열정적으로 보낸 이후, 그가 일반적으로 하듯이, 단식과 기도의 사순절을 지내기 위해 라베르나로 물러갔다고 우리에게 전해준다. 가난뱅이가 날개달린 세라핌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런 침묵과 기도의 맥락 안에서 이다. 오로지 침묵만이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음과 받아들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베르나에서 그리스도를 뒤따르고 완전히 그분께 결합되고자 가난뱅이를 고무시킨 그 깊은 원의는 마음 속에 그리고 육신에 사랑의 징표들을 그에게 새기신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의 만남 안에서 실현된다. 성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의 그런 체험을 요약한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분의 모습 자체로 변화시켰다.»(대전기 13.5).<sup>6)</sup>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의 만남 이후, 그는 전적으로 하느님 당신 안에 집중하는, 사랑에 빠진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인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린 찬미를 작성한다.: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힘 세시나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나이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나이다…….»(<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1-2).

오상 받음의 기념을 프란치스코 가족으로 거행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 앞에 머물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무한한 것에 대한 원의를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해주며,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타인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는 기도하고 관상하는 침묵의 차원을 회복하도록 하는 초대이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난뱅이는 귀 기울임(들음)에 대해 삶의 하나의 방식이 된 인물로서 소개된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아픈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뿌린 씨앗이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모든 형제들> 48).

6) 원문과 달리 한국어 번역은 이렇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이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의 모습으로 변화시켰다.”



성스러운 흔적을 받은 후, «프란치스코는 산에서 내려왔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모형을 자신 안에 지니고 다녔다. 그것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화판 위에 예술가의 손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 위에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그린 것이었다.»(대전기 13,5).<sup>7)</sup>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만져졌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신이 가난한 이들, 병자들, 나환자들을 만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느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러 간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과 만남은 성 보나벤투라가 전해주는 추위에 떠는 사람의 에피소드에서 보듯이, 프란치스코를 고통을 덜기를 바라는 역사에 의해 십자가에 달린 이들과의 만남으로 이끈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랑의 불길에 타오른 프란치스코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세라핌(천사)의 뜨거운 석탄을 자신 안에 지니었던 그 거룩한 손이 닿자, 그 사람은 즉시 안팎으로 아주 강한 열기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거의 용광로의 불길에 휩싸여진 듯했다.»(대전기 13,7).<sup>8)</sup>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부터 어루만져진 프란치스코를 기억하고 거행하는 것은 «다른 이들 안에서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어루만지기»(<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sup>9)</sup> 37)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온 세상에서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 고통과 아픔의 극적인 다양한 상황들에 손을 대고 의견을 듣도록 우리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재촉한다.

**1.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갈라 6,17).

**목표:** 그렇게 우리 안에 그분의 현존 낙인을 지니고 가고자, 가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진정한 동화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의 크리스천 공통 소명을 살아갈 방식을 쇠신하기.

#### 활동들:

- 이미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현재하시는 주님과 만남의 장(場-공간)들을 되살리기.
- 하느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으로서 침묵의 가치를 회복하기.
- 우리의 원의들이, 어떤 형태의 이기심으로부터도 정화되어, 오로지 하느님께만 집중되도록, 교회와 우리의 프란치스칸 전통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금욕적인 길들을 이용하기.

7) 우리말 번역본은 “성 프란치스코는 산에서 내려왔다. 몸에 나무나 돌에 새기는 어느 예술가가 이룬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느님의 손으로 다시 새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표식을 지니고 있었다.” 임.

8) 우리말 번역본은 “성인 자신은 하느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갖다 댔다. 예언자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이 하는 데 사용된 석탄의 열기로 따뜻해 있는 그의 손에 닿는 순간 추위는 사라지고 그 사람은 마치 오븐에서 나오는 한바탕 뜨거운 김에 쏘인 것같이 따뜻함으로 느꼈다.” 임. 원문과 좀 다름.

9)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uadete et Exsultate), 현대 세계에서 성덕의 소명에 관한 교황 권고 (2018년 3월 19일 반포).



**2. 형제요 자매들인 우리 존재.**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

**목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도록 거저 줌과 선물의 문화를 심화시키기.

**활동들:**

- 우리 가정들과 형제회들 안에서 들음과 이해, 상호 인정과 환대를 허용하는 참된 대화의 태도를 장려하기
- 우리 자신들에 대한 선물임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이타적인 봉사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장려하기.
- 항상 자비와 연민으로 타인을 “어루만지도록” 우리의 말들과 우리의 판단들에 대해 깨어있기.

**3. 친교 안에 우리 존재.**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왔다.»(이사 53, 5)

**목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사랑을 증언하면서 우리의 교회 소속됨을 살아가기.

**활동들:**

- 젊은이들, 버려진 이들, 소외된 이들 그리고 소수자들에 대한 들음(경청)과 환대를 위한 공간 창출을 장려하기.
- 우리 지역교회들이 신앙에서 멀어진 모든 이들과 가장 작은 이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만남을 옹호하는,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기.
- 친교를 방해하는 상처들에 대한 “치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면서, 초교파적이면서 종교 상호 간 협력적 성격의 활동들을 후원하기.

**4. 세상 안에서 우리의 존재.** «주님 친히 나를 나병 환자들 가운데로 이끄셨고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비를 실행하였습니다.»(유언 2-3)

**목표:**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환경들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고통과 아픔의 상황들에서 우리에게 만지고 질문하도록 허락하기.

**활동들:**

-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관상하는 기술을 연습해보기.
- 우리와 우리 형제회 주변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모든 사람의 육신과 영혼의 상처들을 헌신적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애정으로 돌보기.
-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도움으로 향하는 공동 활동들을 장려하면서, 하느님을 믿지 않거나 어떠한 종교도 공언하지 않는 사람들과 만남을 촉진하기.





#### IV. 피조물의 노래를 경축하기(1225-2025)

##### 문헌들

피조물의 노래; 아씨시 편집본 83; 완덕의 거울 100-101과 120; 2첼라노 165; 대전기 9.

피조물의 노래를 작성할 때,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는 이미 거의 완전히 시각장애인이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 믿음의 시선으로, 그는 창조의 경이로움을 관조하고 그것들에 의미를 선사하는 창조주의 현존을 포착할 수 있다. 하느님의 완전함의 거울인 모든 피조물은 저자 자신의 업적이요 선물이기에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다. 모두가 다 함께, 풍요롭게 그리고 선으로써 주시는 «그 위대한 희사자이신»(2첼 77) 창조주 하느님을 관상하고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창조의 합창대를 구성한다. 피조물의 노래는 가난뱅이의 생애 마무리 표현이고 고백인데, 사랑하는 아드님, 그리스도께로 그의 동화됨의 여정 전체를 요약한다. 하느님의 아버지됨(부성-父性)에 대한 그의 신앙은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 형제됨을 선포하는 찬미의 노래가 된다. 실제로, «프란치스코는 아름다운 것들 안에서 최고의 아름다움이신 분을 관조하였고, 피조물들 안에 새겨진 발자국들을 따라서, 가장 사랑할만한 분을 어디에서나 뒤따랐다. 그는 바랄만한 모든 것이신 그분께로 오르고 꼭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로서 사다리를 만들었다.»(대전기 9,1).<sup>10)</sup>

피조물의 노래 기념을 프란치스코 가족으로 거행하는 것은 창조된 것과 우리의 관계에 근본적인 전환으로 우리를 이끄는데, 이는 우리 공동의 집을 소유에서 돌봄으로 대체하는 것에 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이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해야만 한다.: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자 원하는가? 지배자로서 그들과 함께할 권리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그분이 원하는 것일까? 자원의 소비자로서 그것들 안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을 기회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창조 앞에 서 있는 한 형제로서 그 아름다움을 경탄하고 생명을 돌보는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인류학적이고 생태적인 도전 앞에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어머니요 누이인 땅의 미래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대사회에 «세상과의 관계에서 형제성과 아름다움의 언어»(<찬미받으소서> 11)를 다시금 제시하도록 초대된다.

실질적인 생태적 위기는 «인간 환경과 자연환경은 함께 악화됩니다.»(<찬미받

10) 이미 번역된 한국어 번역은 “모든 아름다운 것에서 그는 아름다움 자체이신 그분을 보았으며 창조물에 새겨져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는 어디서나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따랐다. 그는 모든 피조물을 사다리로 삼아 온전히 바라 마지않을 그분께 오르고 그분을 껴안고자 했다.” 임.





으소서> 48)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런 인식은 우리에게 인간 환경과 자연환경이 같은 방식으로 함께 보호되고 아름답게 꾸며진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해준다. 내적인 집인 우리 마음을 돌보지 않고서 공동의 집을 돌본다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생태적이면서도 동시에 통합적이 되는 회심이 필요한데, «생태적 위기가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하기»(<찬미받으소서> 217) 때문이다. 실제로, 피조물의 노래의 마지막 구절은 자유로운 마음을 지닌 사람들만이 용서를 통한 미움과 복수의 논리를 멈추게 할 수 있고,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멋진 조화를 이루며»(<찬미받으소서> 10) 살았던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한 것처럼, 화해와 화합의 도구들인 형제애의 예언자가 될 수 있다.

**1. 그리스도 안에 우리 존재.** «내 주님,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미 받으시옵고, 그 가운데 각별히 주인이신 해님 형제와 더불어 찬미받으소서. 해님은 낮이옵고, 그로써 당신께서 저희를 비추시나이다. 아름답고 장엄한 광태로 빛나는 해님은,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모습을 지나나이다.»(피조물의 노래 3-4)<sup>11)</sup>

**목표:** 모든 피조물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창조주의 현존과 아름다움을 알아볼 줄 아는 관상적 시각을 회복하기

**활동들:**

- 우리가 모두 그 아름다움을 포착하고, 그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 자주 적절한 시간을 창조물에 대한 관상에 바치기.
- 우리를 모든 피조물과 일치시키는 끈들(유대들)을 포착하도록 돕는 기도와 묵상을 위한 영감으로 피조물의 노래를 사용하기.
- 프란치스칸 가족의 여러 사무국들이 출간한 여러 교재들을 활용하면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있는 실행 제안들을 주의 깊게 전망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기.

**2. 형제들과 자매들인 우리 존재.** «당신은 삼위이시고 한 분이시오며... 당신은 아름다움이시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3-4).<sup>12)</sup>

**목표:**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과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들 안에 새겨진 친교적 소명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기.

**활동들:**

- 다른 프란치스칸 가족들과 형제회의 회원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고, 그로써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긍정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11) 우리말 번역본은 5-9절에 해당됨.  
12) 우리말 번역본은 4-8에 해당됨.



- 책임감 있게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생태적 위기들을 악화시키면서 창조된 것과 우리의 유대들을 훼손하는데 이바지하는 활동들이 어떠한 것들인지 규명하기.

- 폐기물들의 감소, 자재들의 재사용, 재활용, 물 등과 같은 자원들에 대한 책임감있는 사용의 실천들을 우리의 가정들과 형제회들 안에서 촉진하고 강화하면서, 우리에게 공동의 집을 돌보도록 해주는 통합적인 생태적 전환(회심)을 위한 결정적인 여정에 착수하기.

**3. 천교 안에 우리 존재.**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로마 8,21)

**목표:** 창조주와 피조물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치유와 그들의 근원적인 조화로움의 회복을 장려하는 데에 우리의 교회적 책임에 대해 자각하기.

**활동들:**

- 우리가 모두 같은 집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것을 돌보아야만 한다는 인식을 심화하기.

-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노선 안에서, 경제적으로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내다 버리는” 사회적 구조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대안이 되는 대안으로써, 포괄적 경제에 이르고자 방향 지어진 주도적 활동들을 촉진하기.

-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 활동하는 교회 그룹들에게 더 많은 공간과 가시성을 제공하기.

**4. 세상 안에 우리 존재.**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

**목표:** 인간 환경과 자연환경이 상호 간에 서로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인식 안에서 성장하기.

**활동들:**

- 더욱 거주하기에 적합한 공동의 집이 되기 위해 선의의 모든 사람과 협력하기.

-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외침을 듣는 것과 대응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다양한 사회와 종교 기관들과의 네트워크로 하는 일을 촉진하기.

- 언어, 문화, 인종 또는 종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향하는 주도적 활동들을 통해서, 이득을 얻음과 버림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대화와 형제애의 문화를 촉진하기.



## V. 아씨시 프란치스코의 파스카(건너감)를 경축하기(1226-2026)

### 문헌들

유언; 시에나에서 쓴 유언(cf. 아씨시 사본 59); 1첼라노 109; 대전기 15; 피조물의 노래의 마지막 구절.

현대사회 안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종종 제거되는데,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라고 느끼게 하는 잘못된 확신들을 드러내도록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에,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는 노래를 부르며 자매 죽음을 환대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느님과 충만한 친교로 들어서도록 해주는 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생명은 돌려드려야만 하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 전부를 바치시는 분께서 여러분 전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 그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남겨 두지 마십시오.»(형제회 29).

그의 생애의 마지막 날들에,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삶을 관조하고 모든 곳에 계시는 주님의 현존과 활동들을 발견하는데, 그래서 유언에서 후렴구처럼 반복한다: «주님께서 나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당에 대한 그런 신앙을 주셨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큰 신앙을 말씀하셨고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형제들을 나에게 주신 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무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유언 1-14). 그녀의 생애 마지막 날들에 자신의 유언을 작성할 때, 아씨시의 클라라도 같은 태도이다. 실제로, 그녀에게도 역시 하느님은 선사하시는 분으로 인식되는데, 특히나 성소의 은혜를 위해 아낌없이 주시는 모든 선물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려야만 하는 것이다(클라라 유언, 1-2).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파스카(건너감)의 8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역사와 우리 프란치스코 가족의 역사를 관조하도록 하는 초대인데, 그것은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또는 현시대 안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어렵고도 극적인 상황들 안에서도 또한,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들을 포착할 줄 아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해, 특히나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그의 복음적 체험의 선물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기회로써, 이는 뒤따름과 사도적 활동의 다채로운 색조로 표현된 카리스마가 되었으며,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가톨릭교회 내부는 물



론이고 외부의 모든 문화의 여성들과 남성들을 향하게 하는 힘을 지닌다. 자신의 건너감이 가까이 오자 프란치스코는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진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주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직 목적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삶의 거룩한 새로움을 얻으려는 뜻을 꾸준히 견지하면서 늘 다시 시작하기를 바랐다. 그는 전처럼 다시 나환자들에게 봉사하기를 원하였다.»(1첼 103).<sup>13)</sup> 프란치스코의 파스카(건너감)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사랑에 매료시키도록, 그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기 위하여, 형제들이요 자매들로서 온 세상으로 우리를 파견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응답을 새롭게 하도록, 매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cf. <주님의 기도 묵상>, 5)

마지막으로, 가난뱅이의 건너감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성덕으로 불리며, 그분처럼 우리가 모두 복음과 우리의 프란치스칸 성소의 아름다움을 다시 반사하도록 초대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기회이다. 왜냐하면, «성덕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기 때문이다(<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9).

**1.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는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주 하느님께 모든 좋은 것을 돌려드리고, 모든 좋은 것이 바로 그분의 것임을 깨달으며, 모든 선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선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옵니다.»(비인준회칙 17,17).

**목표:** 하느님을 우리가 모든 선을 찬미와 감사로 돌려드려야만 하는 선사하시는 분으로써 인정하기

**활동들:**

- 우리의 삶이 되돌려드릴 선물이라는 인식을 생생하게 유지하기
-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유언에서 조명받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 개인의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인식하고자 노력하면서 그 역사를 회상하기.
- 크리스천 성소의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프란치스칸 가족에 소속됨에 대해서 감사의 정신을 새롭게 하기.

**2. 형제들이요 자매들인 우리의 존재.** «주님께서 나에게 형제들을 주셨습니다.»(유언 14).

**목표:** 형제 프란치스코와 형제회라는 선물을 경축하기.

**활동들:**

- 형제회 안에서 그것을 현재 안에 구체화할 수 있기 위한 가장 적합한 양식들을 함께 찾기 위해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인물과 프란치스칸 영성에 관한 연구와 반성의 날들을 기획하기.

13) 이 자료에 인용된 1첼 103의 이태리어 내용을 번역하면 이렇다. :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금도 또는 아무것도 이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목적인 바를 얻었다고 믿지 않았으며, 거룩한 쇄신에 관하여 지칠 줄 모르게 지켜오면서, 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는 나환자들을 위한 봉사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다.»



- 형제회 안에서, 각자 프란치스칸 카리스마(은사), 자신들의 꿈들, 어려움들, 등등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만남과 대면의 장(場)들을 장려하기.
- 프란치스코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형제 프란치스코와 형제회의 선물을 우리에게 경축하도록 해주는 전례적 장(場)들을 계획하기.

**3. 친교 안에 우리 존재.** «주님께서 나에게 성당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을 주셨습니다.»(유언 4)

**목표:** 성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 선물을 교회 안에서 기념하기.

**활동들:**

- 우리의 공동체들, 본당들, 교육 센터 등에서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칸 가족의 현존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 카리스마에 대한 인식을 장려하기.
- 성 프란치스코가 교회에 보여준 선물을 경축하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만남들, 전례들, 등을 조직하기.
- 성덕의 모델이며, 그래서 참된 인간성의 모델로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를 제시하기. 그것은 현시대의 모든 문화와 사회 안에 현재해 있는 인간성의 씨앗들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도록 우리를 돕는 것이다.

**4. 세상 안에서 우리 존재.**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 세상에 파견하신 것은,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목소리를 증거하려는 것입니다.»(형제회 8).<sup>14)</sup>

**목표:** 받은 선물들을 관대하게 되돌리기 위한 기회로써 복음화를 지원하기.

**활동들:**

- 선포와 복음화의 구체적인 주도적 활동을 통해 희망과 기쁨의 증거를 제시하도록 형제회들을 고무시키기.
- 성령께서 창조성과 새로움으로 우리 시대의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 작용하고 계시는 것이 어떠한지를 재빨리 인식하기 위해 시대의 징표들을 지혜롭게 읽도록 교육하기.
- 복음의 기쁨과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주 그리고 기꺼이 가장 변두리이면서 소외된 지역에 살아가는 형제자매 가운데 있는 자가 되고 그들을 방문할 임무를 맡기.
- 우리의 형제회들, 성당들, 박물관들, 등에 존재하는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유산을 활용하면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우리 가족의 역사를 사회에 소개하기.

14) 한국말 번역본에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 세상에 파견하신 것은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임.



프란치스칸 가족 협의회